

'자리이타' 가난한 나라에 학교 설립 이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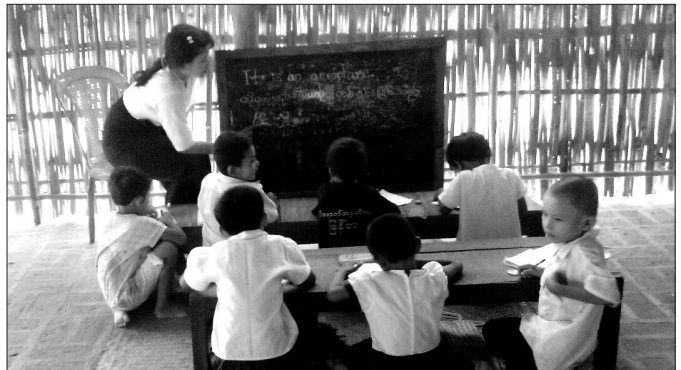
지구촌공생회
정혜사 후원, 올해 초중등학교 기공

천호월서희망재단
미얀마에 3개 학교 세울 예정

아름다운동행
태풍 피해 필리핀 초등학교 복구



전주 정혜사에서 후원한 미얀마 더포아 정혜초중등학교는 지구촌공생회가 8개 국가에 지원한 47개 시설 중 최대 규모다. 사진은 지난 1월 지구촌공생회가 완공한 라오스 논킬렉 불국 초등학교 교사 앞에서 월주 스님 등과 학생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천호재단이 학교를 세울 미얀마 세렛지역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모습



아름다운동행이 6월 17일 필리핀 팔로시에 완공한 파원초등학교

교계 단체들이 앞다퉈 빈곤국에 학교를 세우고 있다. "세계를 겨냥한 자비실천"이라는 목표로 활동하는 대표적 국제개발구호단체인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는 지난 6월 10일 미얀마 양곤시 외곽 사우스다곤 타운십에서 더포아 정혜초중등학교 건립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다. 지상 2층 총 12칸으로 건립될 학교는 지구촌공생회가 8개 국가에 지원한 47개 시설 중 최대 규모다. 대한불교보문종 전주 정혜사에서 학교 건립기금 1억5천만원을 후원한 덕분이다.

지구촌공생회측에 따르면 불국교가인 미얀마는 공립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싼 등록금으로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기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불교사원들이 사원학교를 설립해 무상 교육을 제공하고 있지만 잦은 행사와 장례의식으로 수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학교가 건립될 더포아 사원학교 역시 환경이 열악하다. 대나무 기둥과 나뭇잎 지붕에 벽대신 천을 두른 웅성한 공간에서 210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비라도 내리면 상황은 더 악화돼 쏟아지는 빗물에 수업을 중단해야 할 정도다. 정혜초중등학교는 유치원과 초중등과정을 모두 운영할 예정이다.

천호월서희망재단(이사장 월서) 역시 6월 19일 미얀마 북부 세렛에서 초중등학교

작공식을 가졌다. 이 지역은 양곤에서 차로 약 12시간 걸릴 정도로 멀리 떨어진 외곽. 때문에 주변에 학교가 없어 마을에 있는 쉼터사라는 절에서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해왔다.

제대로 된 교실이 없어 바닥에서 칠판을 놓고 수업했던 420명의 학생들은 11월이면 완공될 학교에 대한 기대로 가득차 있다. 천호월서희망재단은 미얀마지역에 2개 학교를 더 지을 예정이다.

이외에도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에서는 지난 6월 17일 필리핀 팔로시 파원초

등학교 공사 완공식을 가졌다. 지난해 태풍 약 12시간 걸릴 정도로 멀리 떨어진 외곽. 때문에 주변에 학교가 없어 마을에 있는 쉼터사라는 절에서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해왔다.

이로써 천막을 치고 교육받았던 학생 659명은 새로 단장된 교실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됐다. 아름다운동행은 부락초등학교 등 나머지 7곳의 학교 재건작업을 10월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가난 등 사회적 고통으로 무명에 머물러 있는 중생구제는 불교의 기본 교리다. 월서 스님은 "캄보디아 등 빈곤국의 상

황을 보면 비참할 정도"라며 "이 나라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교육이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마음으로 자리이타의 마음으로 사업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공 스님 역시 "어렵고 지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독점보다는 나눔, 대립보다는 공존을 우선시 하는 미래의 지도자들이 학교에서 나오길 기원한다"며 상생의 가치를 실현해나갈 학교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생김새 달라도 하나로 하나"

제5회 전국다문화어린이합창대회... 이천초등학교 대상

"진심으로 나누다보면 정말 내 친구가 되는 느낌이지요. 친구되는 가장 멋진 방법은 마음으로 나누어주기예요."

6월 18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 다문화 초등학교 400여명의 하모니가 울려퍼졌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전국다문화어린이 합창대회.

다문화합창대회는 초등학교 다문화어린이가 절반이상 포함된 전국 각지의 합창단을 대상으로 매년 개최되는 행사다. 한국다문화센터(공동대표 무월)가 사회 전반에 다문화 가치를 알리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행사는 21개 팀이 중창과 합창 두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김성희 한국다문화센터 운영위원장은 "다문화 아이들이 일반 아이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싶어서 합창대회를 조직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창초등학교 김세희 교사 역시 "자신감이 부족했던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합창 연습을 통해 밝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합창대회가 아이들이 스

스럼없이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촉매제가 됐다는 데 동의했다.

최대 인원으로 참가한 김해 삼성초등학교 소속 삼성다문화합창단은 37명 중 12명이 다문화어린이이다. 서동주(12)군은 어머니가 일본인이다. 서군은 "서먹했던 친구들과 합창연습을 함께 하며 학교생활이 재미있어졌다"고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시상은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인기상 등 총 11개팀에 주어졌다. 대상을 차지한 이천국제어린이합창단 소속 강지현(9)양 어머니 유혜경(41)씨는 일부러 아이에게 다문화 합창단에 가입하도록 권유했다. 그는 "생김새가 조금 다르다고 차별하는 시선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했다"며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고 평등하다는 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알아갔으면 한다"고 바람을 밝혔다.

현재 한국의 결혼 이민자는 24만명, 다문화가족은 40만 가구에 달한다. 합창을 통해 어울림의 가치를 심어주고자 마련된 다문화 합창은 이 대회까지 거의 유일하다.

배현진 기자



올해로 5회를 맞아 6월 18일 열린 전국다문화어린이합창대회는 화합과 어울림의 축제였다.

노년층, 약물 의존도 높아 심각한 상태

서울어르신상담센터, 6월 20일 중독 실태 세미나

노년층은 어떤 중독에 취약하고 치료 방안은 무엇일까.

서울어르신상담센터(센터장 최유)는 6월 20일 한국보노이문화기법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노인 주요 중독 유형별 실태를 파악하고, 대안을 논의하는 '노인 중독실태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해 서울시 소재 노인복지관 28곳 및 탑골공원과 종로 3가의 역사를 이용하는 505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관련 연구조사가 바탕이 됐다.

알코올, 약물, 인터넷, 운동, 도박 등 5가지로 노인중독 종류를 분류하고 실태를 파악한 결과 응답자의 60%는 의사에게 처방을 받지 않은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 비처방 약물 중에는 영양제(31.5%), 드링크제(17.7%), 감기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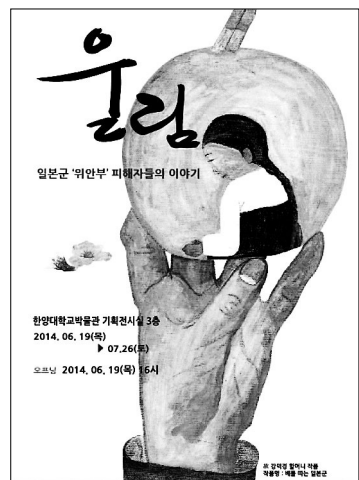
(17.3%), 외용제/연고(16.7%) 순이었다.

서울어르신상담센터측은 "자신이 복용하는 약물의 이름(59.3%)과 부작용(60.8%)을 알고 있는 노인은 적은 반면 약에 대한 전문가의 설명을 이해한다고 응답한 노인은 96.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면서 노년층이 잠재적 약물중독 문제를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는 '우리나라 중독현황과 전망'에 대한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김용석 교수의 기초강연을 시작으로 노인중독에 대한 치료와 예방에 대한 분야별 관점을 두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외에도 노인중독에 대해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의 접근방안과 복지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연세대 사회복지학과 남석인 교수)도 다루었다.

배현진 기자

나눔의 집 특별전 '울림'... 7월 26일까지 한양대 박물관서



위안부 할머니 그림 및 유품 전시

일본군 위안부를 둘러싸고 일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물지각한 발언이 계속되는 가운데 위안부 관련 역사적 사실을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리고자 기획 전시가 열린다.

'울림-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이야기' 전시가 한양대 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6월 19일부터 7월 26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전시는 나눔의 집 부설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과 한양대 박물관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전시품은 고(故) 김순덕 할머니와 강덕경

할머니의 그림 14점과 박옥련, 김화선 할머니 유품,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한국·일본 교과서, 신문기사 등이다.

이와 함께 문화 강좌도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한양대 박물관 2층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6월 27부터 차례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과거와 현재(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 발표)', '피해자 할머니의 삶(나눔의 집 강일출, 이옥선 할머니)', '전쟁범죄로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선아 교수)'가 이어진다.

전시회에서는 위안부 문제를 일본국의 국제인권법 위반 사례로 규정, 일본 정부에

공식 사죄, 법적 배상, 역사 교육을 권고한 UN 및 국제인권기구들의 결의안도 확인할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사전에 신청하면 된다.

나눔의 집 부설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자료 3060점은 지난해 국가기록원에서 국가 지정기록물로 지정 등록됐다. 국가지정기록물은 민간기록물 중 연구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을 대상으로 보존 등의 과정을 거쳐 후대에 전승된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해증언 구술기록, 심리검사, 위안부 할머니들이 직접 그린 그림과 유품 등이다.

전시 해설은 매주 월~금요일 오후 3시~3시 40분까지 전시실 3층에서 진행된다. (02)2220-1394

배현진 기자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마이크에서 소리를 직접 조절하는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주지스님 전용 고성능 구즈넥마이크를 먼저 사용 해 보신 후 구입하십시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씨리츠 전국일괄 설치비 : 1,800,000원
- 법당전용 스피커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내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어떤 오래된 앰프에 사용해도 뛰어난 소리가 납니다!!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1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010-5335-2695
서울시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7기 佛敎儀式(범음·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서, 쇄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 중급과정 (3개월) 상주관공, 대령관공,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4년 6월 30일 까지
- ◆ 개강일시 : 2014년 7월 1일 (화요일) 개강.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영합판 사진 3매

명리학 과정 (임성도 교수)

- ① 명리학: 초급, 중급, 고급 (각과정 3개월) 2시 반 ~ 4시
- ② 성명학: 초급, 상급 (각 3개월) 1시 ~ 2시 반

▶ 개강일시 : 2014년 7월 7일 (매주 월) ◀

※ 본원은 초중과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제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